



정읍교육지원청, 학교 체육기구 정비 지원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상반기 관내 학교초 9교, 중 4교, 고 1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체육기구 정비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로 운동장 축구골대에 보호대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네트 등을 교체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14개 시군의 학교업무지원센터 중 최초로 실시한 지원 사업인 만큼 학교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나 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는 작년 7월 개소 이후 현재까지 학교업무경감개선 TF를 5회 운영함으로써 교장 교사, 행정실장 등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 발굴한 신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인력재용 분야를 교육공무직원(미하원, 시설관리원, 경비원)까지 확대 지원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큰 물품·교복·현장체험학습 업무를 개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예수사랑교회, 설립 20주년 이웃사랑 실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최근 김제예수사랑교회(담임목사 최정호)가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역 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이웃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교회 20주년을 기념해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으로 사용되어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예정이다.

최정호 담임목사는 “교회가 걸어온 20년의 시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을 나누었다. 교인들과 함께 마련한 이번 기부는 그 감사한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장애인복지관, 취약계층 폭염 대비 물품 전달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종윤)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북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에너지위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이 사회적 재난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무주군 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에 여름철 생존 필수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 가정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폭염 대응을 위한 물품들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여성단체, 원예치유 활동 프로그램 진행

지난 18일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마경옥) 임원진(10여명)은 6개 읍·면 어르신(40명)과 함께 역량강화 어르신 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원예치유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서적 위로와 활력을 전했다.

이번 원예치유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증진을 목표로 마련되었으며, 지역 어르신이 참여해 미니 화분 만들기 체험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원예활동으로 구성되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요즘 집에만 있어 답답했는데, 식물을 만지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환해지는 것 같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 마경옥 회장은 “작은 식물 하나가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서 ‘흑염소협회 한마음대회’

전춘성 진안군수 등 500여명 참여... 염소 품평회·시식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제1회 전북흑염소협회 한마음대회’가 17일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육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 변성섭 농협진안군지부 지부장 송재근 무진장축협 조합장을 비롯해 11개 시·군 흑염소 종사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안군 마이산북부관광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북흑염소협회(회장 전영기)에서 회원간 화합을 도모하고 염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북흑염소협회 회원 및 전국 흑염소산업 종사자 등의 교류를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염소 품평회와 시식회 축산기자재 전시회, 회원 노래자랑 및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흑염소 품평회는 협회에 소속된 11개 시·군의 우수 흑염소 사육 농가가 참여해 뛰어난 육질과 생산성을 자랑하는 흑염소들을 한자리에 모아 내방객들의 참여



와 협회 임원진의 심사를 거쳐 우수 흑염소를 선발해 시상했다.

또한 염소고기 시식회를 열어 염소구이, 케밥, 꼬치구이 등 염소를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3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축산기자재 전시회는 스마트 축산 시스템, 자동화 장비 등 최신 축산 기술과 기자재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흑염소 농가의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협회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회원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행사 분위기가 한층 고조됐다.

전영기 회장은 “이날 행사는 협회 회원과 염소산업 종사자들이 다 함께 모여 화합을 다지고, 흑염소 산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자봉센터, 무주군서 ‘착한 한끼 나눔’ 진행

(사)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 전문봉사자 130여명)와 함께 한끼를 한뜻으로 17일에 무주군 예천문화관에서 지역어르신 400여명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본 행사는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방지 및 공동체意識 회복을 위한 푸드봉사과 전문재능봉사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으로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 무주군에서 온기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활동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곰국과 수박 등의 시원한 음식과 서균요법, 속뜸, 귀나사, 혈당검사 등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건강에 집중해 활동을 전개하며 자원봉사자 하하거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또한,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강우 이사장)는 “오늘과 같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이 계속되도록 자원봉사를 통해 꾸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전북특별자치도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오늘과 같이 자원봉사로 연대와 화합을 통해 하나 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곽노태 기자

전북새일센터,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원장 전정희)는 17일 도내 15개 기업과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새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기업들과 함께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여성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전주시 여성대표기업인 (주)유익길즈를 비롯해 참사랑머니회, (사)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유한회사 현춘식품, 중앙요양병원, 한나여성의원, 주식회사 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 등 15개 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석해 △여성인력 채용 확대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 △양성평등 실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협약서 서명, 일촌기업 현관 수여, 우수기업 사례 소개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 기업들은 실



정읍시, 세정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등 워크숍

정읍시가 지방세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자주재정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2일간 워크숍을 열고 교육과 지역 탐방을 병행했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JB연수원 아우름캠퍼스와 정읍 일원에서 2025년 세정업무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및 우리 지역 탐방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청과 읍면동 세정업무 담당자 33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정종필 교수를 초청해 ‘지방세 제도와 과세자주권’을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강의에서는 지방세의 구조와 역할 과세원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방세수 확장을 위한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2일차에는 대외마을 사발품문 작성지를 방문해 무명 동화농민군 위령탑 앞에서 묵념을 올리며 선조들의 정신을 기렸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소방서김민주 소방교 전국 몸짱 소방관 ‘2위’

진안소방서(서장 김충국)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제38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몸짱 소방관’ 분야에서 진안119안전센터 김민주 소방교가 전국 2위에 오르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몸짱 소방관’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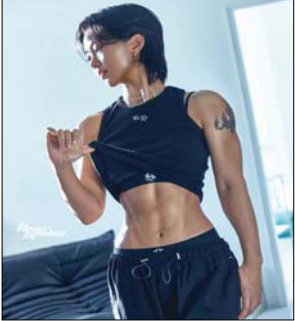
대회’는 소방공무원들이 평소 갖고있는 체력과 자기관리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실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꾸준히 단련한 건강한 체력과 근육을 선보이는 자리다.

올해 대회는 전국에서 선발된 30명의 소방공무원이 참가해,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김민주 소방교는 바쁜 현상 활동과 교대근무 속에서도 체계적인 훈련과 꾸준한 체력단련을 이어온 끝에, 전국 2위라는 값진 결과를 얻으며 뛰어난 자기관리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에게 체력과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조진형 이룸바이오 대표,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

남원시는 지난 16일, 조진형 (주)이룸바이오 대표이사가 남원시(시장 최경식)를 찾아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룸바이오는 친환경 특허기술을 활용한 공공·해충 방역 전문 기업으로, 전남대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에 본사를 두고 전국에 의료용 살충제를 납품하고 있는 차세대 에코스타트업 선도기업이다.

조 대표이사는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부영반찬마트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위원장 김희만)는 지난 17일, 1일 17구 소동 행정의 일환으로 부영반찬마트(대표 맹정옥)에 ‘착한가게 45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의미한다. 착한가게로 선정된 업소에는 시장의 열매 모양의 현판이 부착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맹정옥 대표는 “평소에도 나눔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착한가게로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준 부영반찬마트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신레미콘, 남원 덕과면에 수박 기부

남원시 덕과면(면장 성월계)은 (주)남신레미콘(대표이사 김창환)이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도록 하는 수박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시원한 수박을 전달하고, 폭염 속 건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 요령과 실천 수칙을 상세히 안내하며 안부도 함께 확인했다.

남신레미콘 대표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보다 건강하게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